자연복원 1년, 고운사에 생명이 깃들다

9월 11일, 불교환경연대 등 5곳
모니터링 결과 공유·안내판 제막
야생동물 관측…멸종위기 생물도
"국가 차원 프로젝트 지원 필요"

의성 고운사=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9월 21일 열린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1주년 기념행사'에서 주지 등운 스님과 안동환경운동연합 김동수 대표가 자연복원 과정을 담은 안내판을 제막하는 모습.

지난해 가을 26종에 머물렀던 야생조류가 올해 봄 53종으로 늘어나는 등 고운사 사찰림이 산불 이후 생태계 회복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환경연대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안동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생명다양성재단은 9월 21일 의성 고운사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1년간 진행한 자연복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의성 산불로 고운사 사찰림249ha 가운데 97.6%인 243ha가 불탔지만, 고운사는 피해목을 일괄 벌채하고 다시 나무를 심는 대신 자연 스스로 회복하도록 하는 자연복원 방식을 택했다. 의성 지역은 화산 지형으로 바위가 많고 토양층도 10~20cm 정도로 얕아,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기보다 자연 회복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기념식에서 등운 스님은 "처음에는 까만 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주일 만에 재 사이로 한 뼘 정도의 새싹이 올라와 있었다"며 "위에 나무는 타버려도 뿌리는 살아 있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고 전했다.

기념행사에서는 자연복원 과정을 담은 안내판 제막식과 생명을 축원하는 바라춤, 재난 기억의 설움을 풀어내는 도살풀이춤 공연도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이후 템플관에서 1년간 관찰한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포유류 조사에서는 노루·고라니·담비·삵·오소리·너구리·족제비 등을 포함해 17종이 확인됐다. 특히 수달의 출현이 주목됐다. 수달은 약 8㎞ 떨어진 미천에서 물줄기를 따라 이동해 고운사 주변 하천과 저수지, 계곡에 자주 나타났다. 담비는 고운사 주변뿐 아니라 인근 수정사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삵도 능선보다 산 아래 고운사 주변에 주로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자연복원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재난의 아픔을 위로하는 도살풀이춤.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장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현재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고 번식하는 개체들도 확인되고 있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 고운사를 중심으로 야생동물이 돌아올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조류 변화는 자연복원 과정에서 확인된 뚜렷한 진전 중 하나다. 지난해 가을 조사에서 26종이었던 야생조류는 올해 봄 53종으로 늘었으며, 관찰 빈도도 가을철 200~400건 수준에서 약 1800건으로 증가했다. 직박구리·되지빠귀·소쩍새·쏙독새·청딱따구리·큰부리까마귀·호반새 등이 확인됐으며, 올빼미·팔색조·긴꼬리딱새·수리부엉이·원앙 등 법정 보호종도 출현했다.

특히 고사목은 산불 이후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요소로 제시됐다. 고사목에 곤충이 모이고 곤충을 먹는 새가 찾아오며, 딱따구리류가 만든 나무 구멍은 다른 생물의 서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경석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는 "소리만으로 자연 회복이 얼마나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 회복의 기준을 마련해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도로에서 위험이 되는 나무만 정비하고 나머지는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 접근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곤충 조사에서는 198종이 확인됐다. 자연복원지와 인공복원지 등에서 산불로 죽거나 약해진 나무를 먹이 자원으로 삼는 나무좀아과와 침엽수비단벌레 등이 다수 발견됐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도 확인됐다. 애기뿔소똥구리는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살아가는 종으로, 배설물을 남기는 포유류 등 다른 생물의 활동이 함께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임광묵 서울대 생명과학부 연구자는 "예상보다 높은 곤충 다양성과 개체수가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가 향후 산불 피해 지역의 생태계 회복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기준선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산불 이후 생태계 회복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사·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소장은 "산불 이후 산림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자연복원 과정을 과학적으로 추적·조사할 수 있는 대규모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며 "생태 분야 전문가과 시민들이 주체자로 참여해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환경연대와 연구기관들은 앞으로도 고운사 사찰림의 자연 변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기고

고향사랑기부, 지역 살리는 보시

불교에서 보시(布施)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곳에 내어놓음으로써 나와 이웃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는 실천이다. 나의 작은 나눔이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 공덕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이 보시의 정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보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가는 지역, 지켜주고 싶은 공동체와 사업을 직접 선택해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4년 만에 상당한 성장을 이뤘다. 2023년 650억원이던 모금액은 2025년 1515억원으로 늘었고, 기부 건수도 139만 1850건에 달했다. 그러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전체 기부의 98.4%가 10만원 이하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이유는 현재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 약 44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였다. 이를 각 지방정부는 국가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늦거나 어려운 피해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교와 직접 만나는 사례도 있다.

경남 창원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하나로 천년고찰 성주사의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기부자는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산사에 머물며 예불과 공양, 산책, 스님과의 차담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강원 동해에서도 무릉계곡에 자리한 삼화사의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체험형 답례품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다.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보내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방문해 사찰에 머물고 지역 식당과 상점을 이용하게 한다. 기부금은 지역으로 가고, 답례품은 사람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들인다.

지난해 1515억원 모금…세액 공제 확대 필요성
기부자에 템플스테이 기회…불교문화 접목 '기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높아졌지만, 기부자의 선택은 여전히 10만원 부근에 머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모금액은 29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5%나 감소했다. 세액공제율만 조정한다고 기부가 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를 바라보는 국민의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현재 10만원인 전액 세액공제액을 20만원으로 확대하면 모금액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문제도 해결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여러 지방정부의 사례는 이 제도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보여준다. 2004년 이후 소아청소년과가 없었던 전남 광주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해 2024년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3000명 이상의 소아·청소년이 진료를 받았다.

2025년 영남권 대형 산불 때에는 더욱 분명한 모습을 보여줬다. 울산 울주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등 특별재난지역 8곳에 산불 발생 열흘 남짓 만에 사찰 역시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국의 많은 전통사찰은 수백 년, 때로는 천 년 넘게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공간이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전통문화체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등을 더욱 다양하게 연결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교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화엄경〉이 보여주는 세계는 하나가 곧 여럿과 연결되고, 여럿이 다시 하나를 이루는 세계다. 지역의 소멸도 어느 한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의 회복 역시 그 지역만의 이익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기부가 한 아이를 살리고, 한 마을을 지키며, 한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향해야 할 곳도 분명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나눔문화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각회 수석부회장)



